

운동원 집단 폭행·흑색선전·돈 살포...

격전지 어김없는 막판 추태

총선 D-2

4·9총선을 사흘 앞두고 각 후보들 간 치열한 득표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격전지 후보 선거운동원들간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지지자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각종 허위선고 가 채도하는 등 선거가 막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4·5·6·8면〉
이와 함께 목포에선 막판 관세를 뒤집기 위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데 이어, 돈봉투 살포 폭로사건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어 선거 종반 유권자들의 표심변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 광산구갑에 출마한 무소속 송

병태 후보 자원봉사자들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선거 감시활동중인 자원봉사자 1명이 지난 4일 오전 민주당 김동철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폭행당했다'며 '명확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김 후보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낮 11시30분께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의원이 출마한 무안·신안에서 김 후보의 부인 신 모씨가 탄 차량이 경찰로부터 수색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수색은 '김 후보의 선거지원 차량 가운데 0000호에 돈 봉투가 실려있다'는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입회하에 경찰 3명이 실시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낙을 받고 수색을 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목포경찰은 또, 이날 박지원 무소속 목포 후보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 후보 측은 또 선거운동원을 사칭,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박 후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합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남도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해남·진도·완도 선거구 민화식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B씨 등 2명을 현금 3천만원 가량을 살포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도망간 이들 2명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며, 선관위도 현금 살포와 관련된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편 목포에선 민주당 정영식 후보와 현역 의원인 무소속 이상열 후보가 5일 여론조사를 통해 정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는 정-이 두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할 때 박 후보와 엇비슷한 수준이어서 주목된다. 박 후보 측은 그러나 "이 후보의 선거캠프가 이미 와해된 상태인 만큼 기존 선거 관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정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국인 첫 우주비행 카운트다운



8일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를 태우고 우주로 향할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TMA-12호가 발사 이틀을 앞둔 6일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발사대에 장착됐다. /AFP연합뉴스

한국 최초 우주인을 탄생시킬 우주선 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8일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29·한국항공우주연구원)씨의 역사적 우주비행을 이틀 앞둔 6일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가 바이코누르 발사대에 위용을 드러내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 우주선은 이 씨와 러시아 우주인 선장 세르게이 볼코프(34), 비행 엔지니어 올레그 코노넨코(43)를 태우고 4월8일 오후 8시16분27초(한국시간) 화염을 뿜어내며 한국인의 우주에 대한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관련기사 2·16·20면〉

이 씨는 발사후 이틀동안 지구를 33~34바퀴 돌면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접근, 도킹을 시도하고 성공하면 바로 지상 임무통제센터와 화상 연결을 통해 예비우주인 고산 씨와 교신을 한다.

이 씨는 ISS에서 10일동안 초파리의 노화과정 등 18가지 우주과학 실험

광주 출신 이소연씨 탑승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호'

내일 20시16분27초 발사

결과 한국 학생들과의 무선교신, 한국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 씨는 19일 카자흐스탄 초원지대로 귀환하게 된다.

한편 이소연씨의 안전과 성공적인 우주비행을 기원하고 응원하기 위해 이 씨의 가족, 응원단 등으로 구성된 '한국 우주인 우주비행 참관단'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로 떠났다. 이 씨의 어머니 정금순(57)씨는 "소연이의 성공적인 우주비행과 무사 귀환을 빌어달라"고 말했다.

이 씨의 모교인 광주과학고는 이날 '아! 자랑스러운 광주과학고인 이소연 선배 한국인 최초 우주에 가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애드벌룬을 학교에 내거는 등 한국인 첫 우주인의 탄생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역시 모교인 광주 송원초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응원 게시판"을 개설해 이씨의 무사귀환을 빌었으며, 송원중학교는 이씨의 귀환 이후 초청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 씨와 이 씨의 부모가 다니는 광주시 서구 관천동 성직교회에서도 2주 전부터 소식지와 기도회 등을 통해 이씨의 성공적 우주비행과 임무완수를 기원했다.

／박정욱·정성필기자 jwpark@

전남 닭·오리 농가 'AI 공포'

전북 정읍 이어 순창서도 발생

차량 5대 전남 농가 출입 확인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정읍 농장에서 AI감염 오리 6천 500마리가 지난 2일 나주 오리 도축장으로 반출됐다가 매립 처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지역 닭·오리 사육 농가에 AI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또한 순창군 내 오리농장에서도 AI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남도 등 방역당국과 농가들이 문제가 된 순창지역 오리의 AI감염 및 전남지역으로의 유입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 비상에 걸렸다. 〈관련기사 8면〉 특히 정읍농장에서 감염오리를 실었던 수송차량 5대가 전남도내 5개 시·군 11개 농가를 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전남지역 AI 발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정읍농장에 오리를 공급한 경기도 여주지역 오리농장이 전남지역에 25개 오리농가에 오리를 공급해온 것도 새롭게 드러나 피해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7일 오전 정읍 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나오면, 전남도는 정읍농장과 여주농장에서 오리를 공급받은 도내 36개 농가의 닭 27만천 마리와 오리 33만9천여마리 등 61만여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할 계획이다.

감염 오리를 실었던 차량들이 출입한 농장은 나주시 4곳(공산면 2, 금천면 2)을 비롯해 구례군 2곳(음방면, 무안군 2곳(삼향면, 해례면), 해남군 2곳(산이면, 송지면), 영암군 1곳(금정면) 등 전남 전역에 걸쳐 있어 AI감염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6일 AI가 발병한 정읍 오리농장에서 나주 모 오리가공업체로 반입돼 처리된 오리 6천500마리와 같

은 기간 이 업체에서 가공한 3만여마리의 오리 가공육을 매립했다.

또 전남도는 감염 오리 매립과 함께 감염오리를 실었던 수송차량 5대가 출입했던 11개 농장 등 36개 농가의 모든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취했다.

전남도는 또 이들 36개 농가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오리·닭의 체열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전북과 인접한 담양, 곡성, 구례, 영광, 장성 등 5개 군지역에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긴급 방역작업에 나서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읍 농장에서 나주로 반출된 오리는 매립했으며, 감염 오리 수송 차량이 출입한 농장에 대해서는 출고제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7일 정읍의 AI 감염오리가 고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자칫 역대 최대 규모의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희중·김필성기자 chae@

타르 피해 어민, 보상 특별법 강력 반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보상금 대지급금'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추정한 피해액 범위내에서 피해 어민들에게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광과 신안,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어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

면 정부는 태안기름유출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보상금 대지급금 대출총액 규모 등 4대 원칙을 정한 '하베이스 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은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별 피해액에

대한 IOPC의 사정이 6개월 안에 힘들 경우 정부가 미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대지급금' 대출총액은 304억~1천244억원으로 IOPC 추정 피해액 3520억~4240억원에서 배상한도액(3천216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됐다.

이 같은 피해 보상금 원칙이 알려지자 지역주민들은 대책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맨 왼쪽)씨와 러시아 우주인 선장 세르게이 볼코프(가운데), 비행 엔지니어 올레그 코노넨코(43)씨가 5일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우주인호텔에서 막바지 우주비행 점검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류사고 피해 55만 원의 지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www.yuyu.co.kr

치매성증상, 어지러움, 귀울림, 손발저림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이제, 황금색 타나민을 확인하십시오!
뇌·말초순환개선제 - 타나민

신약강국 독일 슈비베사의 EGb761로 만든 타나민은 연간 국내에서 1~2천만장 이상 복용되었습니다. (2007년 1월~12월)

광고심의일 952-0604

은병일수출품 EGb761...
● 은병일수출품 유행성황열바이러스를 배제, 전장강화된 500mg 미분으로 엄격 관리하는 타나민
● 은병일수출품 추출후 3년간의 특수공정으로 추출된 EGb761로 만든 타나민
● 7가지 특이성: 침묵성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두통, 두통,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 및 혈관성 이질, 말초순환 개선, 신경장애, 간질성장애, 치로제 효과
● 타나민은 2007년 1월~12월 동안 1,000만 장 이상 처방되었습니다. ● 타나민은 2007년 1월~12월 동안 1,000만 장 이상 처방되었습니다.